

‘부상 복귀’ 대구FC, 서울 원정서 ‘연패 탈출’ 노린다

29일 서울 상암서 K리그 6R 경기

최근 예기치 못한 연패로 위기에 빠진 대구FC가 서울 원정을 통해 반전을 노린다.

대구FC는 29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대구FC는 시즌 개막과 함께 연습을 올리며 돌풍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당시 새롭게 꺼낸 포백 시스템과 함께 올 시즌 대구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된 라마스의 맹활약 등으로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달

라진 경기력으로 팬들을 열광케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일 포항 원정 경기 때부터 공격력이 막히기 시작하더니 대전하나시티즌과 FC안양과 맞붙은 홈연전에서 잇따라 지면서 연패를 당했다. 이로써 순위도 리그 1위에서 5위까지 떨어졌다.

최근 경기에서의 부진은 시즌 초반 원활하게 이루지던 공격 패턴이 상대 수비에 자주 막히면서 공격 예봉이 꺾인 것이 주요 요인이다.

특히 세징야와 라마스, 에드가 등 외국인 공격수들이 주춤할 때 국내 공격수들이 골을 터뜨려줘야 팀 공격이 순조롭

공격 핵심 정치인 출전 압박 세징야·라마스와 골 정조준

정우재·이찬동도 킥백 앞뒤 탄탄한 포백 라인 정비 기대

게 흘러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구 공격의 가장 큰 문제다.

또한 수비 부문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리그가 흘러갈수록 대구의 수비 포메이션에 대한 상대팀의 분석이 예리해지면서 더 이상 대구 수비의 신신함이 떨어지고 있다.

패배한 경기를 보면 상대팀의 역습 과정에서 대구 수비진이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는 쓰리백에 익숙한 대구 수비진이 아직 포백에 대해 학습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해 손발이 다소 맞지 않은 데다 수비진을 진두지휘할 베테랑 풀백이 없는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팀의 공격과 중원에서 활약하던 고재현과 박세진이 4월 군입대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하지만 부상으로 선발전에서 빠진 선수들이 속속 복귀할 예정인 점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다. 정우재와 이찬동

이 복귀를 예고하고 있고 올 시즌 대구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박대훈이 지난 경기부터 공격진에 포함돼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부상으로 빠진 대구 공격의 핵심 자원인 정치인도 그라운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서울과의 경기는 대구가 올 시즌 첫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가능하는 시험대로 여겨진다. 2주간의 A매치 휴식기에 얼마나 맞춤형 집중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했는지가 이번 경기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지난 라운드 강원을 상대로 1

대 0 승리하며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결속한 스타인 링가드를 보유한 서울은 현재 2승 2무 1패(승점 8)로 순위에서 대구보다 한 계단 앞서있다. 특히 서울은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다.

대구FC는 서울과의 최근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서울과의 3차례의 만남에서는 1승 2무로 재미를 봤다. 지난해 상대전적에서 앞선 대구가 올 시즌 첫 원정승을 통해 그 여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전창훈 기자 apolonj@maeil.com



女 피겨 이혜인, 세계선수권 쇼트 7위 한국 여자피겨 이혜인이 27일 미국 보스턴 TD가든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이혜인은 기술점수(TES) 36.89점에 예술점수(PCS) 30.90점을 합쳐 67.79점을 받아 33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7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같이 출전한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채연은 11위에 머물렀다. 전창훈 기자

손흥민도 걱정인 ‘잔디’, 개선책 나올까

문체부, 축구장 27곳 전수조사 경기장별 품질·관리 방안 고민

최근 축구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최근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쳐 논란이 된 축구장의 잔디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축구연맹)과 함께 K리그 경기가 열리는 축구장 27곳의 잔디 상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축구연맹은 연맹 내에 잔디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 일본 등 선진사례 조사를 착수했다. 4월부터 K리그 경기장을 조사해 상반기 중 잔디 상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경기장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경기장의 특성과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해 노후화된 잔디 교체와 인조 잔디 품질 개선, 열선 및 배수시설 관리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적인 잔디 유지·관리 지

침 마련과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올해부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축구장 잔디 교체 등 경기장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전수조사 대상 경기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K리그 경기에서 심각하게 대두한 열악한 축구장 잔디 상태를 우려하면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프로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라운드 잔디 관리에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흥민 등 국가대표 선수들도 최근 A매치 경기를 치른 경기장의 잔디 문제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전창훈 기자

155km 강속구·122구 투구...프로야구 고졸 신인들의 반란

삼성 좌완 핵심 불펜인 배찬승 키움과 데뷔전서 ‘무실점’ 활약

한화 정우주도 ‘삼자범퇴’ 제압 키움 정현우는 ‘첫 선발, 첫 승’

고졸 신인 투수 삼총사가 2025 프로야구 시즌 초반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25 신인드래프트 전체 1~3순위로 입단한 키움 히어로즈의 좌완 투수 정현우(18), 한화 이글스의 우완 피어볼러 정우주(18), 삼성 라이온즈의 좌완 핵심 불펜 배찬승(19)은 많은 화제를 뿌리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대구고를 졸업한 배찬승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부터 시속 150km대 강속구를 던지며 큰 기대를 받았다.



삼성 배찬승

한화 정우주

키움 정현우

그는 네 차례 연습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하며 캠프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시범경기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며 개막 엔트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프로야구 데뷔전이었던 23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선 1이닝을 무피안타 무사사구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6~3으로 앞선 6회초에 팀 5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가 단 8개의 공으로 박주홍, 야시엘 푸이그, 이주형을 제압했다. 그는 푸이그에게 시속 155km 직구를 뿌려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배찬승은 KBO리그에서 보기 드문 강속구 좌완 투수인 데다 높은 수준의 제어력도 겸비해 큰 기대를 받는다.

오른손 강속구 투수 정우주도 한화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는 데뷔전인 23일 kt wiz전에서 3~4로 뒤진 8회말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1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았다. 그 역시 직구 최고 구속 155km를 찍었다.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프로야구에 입성한 정현우는 데뷔와 동시에 선발로테이션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6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8피안타 7볼넷 4탈삼진 6실점(4자책점) 하면서 데뷔 첫 승을 거뒀다. 그는 데뷔전인 이날 경기에서 무려 122구의 공을 던져 화제를 모았다. 이는 KBO리그 고졸 신인 데뷔전 투구수 2위 기록이고, 21세기에 처음 나온 기록이다.

국가대표 선발전인 ‘제45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가 이번 주말 열린다.

(사)대한산악연맹은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간 전북 군산시 군산클라이밍센터에서 이번 대회를 진행한다. 올해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로 17세 이상인 국내 정상급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해 태극마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

스포츠클라이밍 국대 선발전 오늘 군산서 개최

리드·스피드·볼터 3종목 진행

스포츠클라이밍은 맨손으로 인공 경사면을 등반하는 종목. 세부적으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오르는 ‘리드’, 두 선수가 동시에 같은 길로 오르면서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 제

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적은 시도로 지탱하는 로프 없이 등반하는 ‘볼터’로 나뉜다.

대회 첫날인 28일에는 남녀 스피드 예선과 결승이 진행된다. 29일에는 남자 볼터 예선·준결승·결승과 여자 리드 예선 및 결승이 펼쳐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남자 리드 예선·준결승·결승과 여자 볼터 예선·준결승·결승이 이어진다.

이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9월 열리는 ‘2025 IFSC(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는다. 서울 대회는 국제 대회인 만큼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정민 기자



대구시청 스쿼시팀이 26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쿼시를 지도하는 재능 기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스쿼시연맹 제공

대구시청 스쿼시팀, 장애인 대상 재능 기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방문 3인 1조로 나눠 함께 운동·지도

대구시청 스쿼시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대구시청 산하 대구스포츠타운에 속한 21개 종목 선수들은 지역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스쿼시팀은 2019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쿼시를 지도, 건강과 재미를 쟁길 수 있도록 돕는 중이다.

26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의 장애인과 조력자들이 대구스쿼시장을 찾았다. 이들은 스쿼시팀 남자 선수들과 3인 1조가 돼 함께 땀을 흘렸다. 선수들은 1시간 동안 스쿼시를 알려주고 지도한 뒤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줬다.

대구시청 스쿼시팀엔 남자 선수가 김승현, 김석진, 심규영 등 3명. 이 가운데 올해 입단한 김승현과 김석진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다.

최명수 스쿼시팀 감독은 “어린 선수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중요하다. 다만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aeil.com

오늘의 주요 경기

△프로야구= KIA-한화(대전) kt-롯데(부산) LG-NC(창원) SSG-키움(고척) 삼성-두산(잠실·이상 18시 30분)

△프로농구= SK-LG(잠실학생체육관) KCC-한국가스공사(부산사직체육관·이상 19시)

△프로배구= 남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 대한항공-KB손해보험(19시·인천 계양체육관)